

 <b>보도자료</b> <span style="float: right;">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span>			
<b>보도 일시</b> 2023. 1. 30.(월) 석간 2023. 1. 30.(월) 06:00	<b>배포 일시</b> 2023. 1. 27.(금) 오후		
<b>담당 부서</b>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b>책임자</b>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b>담당자</b> 사무관 김세준 (044-200-5838)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 약 3,623억원 투입, 친환경선박 60척 건조 및 322척 설비개량 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선박배출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약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및 302척의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한다.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LNG 병커링과 화물하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 기준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을 장착한 전기추진 차도선의 보급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선박 등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와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기술 성능·안전 기준 법제화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현실(VR)을 접목한 체험형 장비를 제작하고,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실제 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및 육상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한다.

이러한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운분야 탈탄소화가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이번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선박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1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요약본

### □ 추진배경

-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시장이 친환경선박으로 급속히 전환 중
  - 「친환경선박법」 제정('18.12)·시행('20.1) 후, 국가 기본방향·목표 제시를 위해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21~'30)'(산업부·해수부 공동)
  - ⇒ '50년까지 '17년 대비 선박배출 온실가스 50% 감축(593만톤)을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집행 및 점검
  - \* (준비기, ~'30) 감축기반 조성→ (이행기, ~'40) 25% 감축→ (성숙기, ~'50) 50% 감축

### □ 핵심 추진전략

#### ① 선박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 LNG·전기·하이브리드 기술 고도화→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 수소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 ② 친환경선박 전환율 15% 달성

- 공공부문 보유선박의 선제적 전환 및 민간부문 보급 확산
- \* 2030년까지 528척(관공선 388, 민간 140) 친환경 전환(전체 대상선박(3,542척)의 15%)

### □ 주요 추진과제

#### < 중점 추진과제 >

1.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 국산화, 무탄소선박 기술 조기 확보로 시장 선점
2. (기술검증) 신기술의 조속한 선박적용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준·시험·평가시설 구축
3. (상용화) 시범선박(그린십-K) 건조 및 해상실증을 통해 선박탑재 이력 확보 등 보급 연계
4. (연료공급) LNG연료 공급능력 확대, 수소 등 미래연료 시험용 인프라 구축 후 상업용 확산
5. (보급촉진)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전환, 민간부문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보급 확산
6. (환경조성) 국내 기술 국제표준화·사업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 기대효과

- 온실가스 40만톤, 미세먼지 3천톤 감축 및 편익 비용(1조3천억원) 발생(~'30)
- 조선·해운 5조원규모 시장창출 및 취업인원 40,113명 증가(~'30)

## 참고 2 관련 사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건조되어 운항 중인 충주 '탄금호 일렉트릭'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실증 중인 '전기추진 차도선'